

# 시한부 환자 위한 자비의 공간

## 정토마을자재병원 예비 개원

“살과 죽음의 기로에 선 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은 염원 하나로 시작 된 3년 6개월의 병원 불사는 결코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고 고행이었습니다. 길이 끊어질 듯, 고립된 섬이 된 듯, 칠할같은 수미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처님을 향한 기도와 대중들의 작은 소망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등불들이 모여 지금의 자재병원이 들어섰습니다. 병원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부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8월 16일 정식으로 환자를 받게 된 자재병원 로비에서 능행스님이 환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과 자재병원 전경.

### 양한방 통합한 통합의학센터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 전하고자

치유프로그램과 장운동마사지, 온열치료기, 수치료기, 전신인마기, 초음파기, 수소수발생기, 찜질방 등의 첨단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자재병원의 예비개원소식을 듣고 도착한 병원은 수목 조정공사가 한창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라도 불자들의 정성의 힘이 느껴지는 병원의 외관에는 불교기가 조형감 있게 건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단아한 선방인 듯 아담한 호otel인 듯, 단아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는 거부감보다 집과 법당처럼 아늑함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입구에서 만난 능행

스님은 휠체어에 앉은 환자 한 분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능행 스님은 “아직 가야할 행보가 많니다. 쓰나미처럼 굽어지는 생로병사의 기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 병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남은 불사를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계에 바람이 있다면 “석남사, 운문사, 통도사가 10분 거리에 있는데, 성지 순례를 오게 된다면, 꼭 이 곳에 들러 살아있는 부처님의 도량인 자재병원에서 이 시대 불교의 새로운 자각과 깨침을 함께 나누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침묵 속에 핀 연꽃, 한국불교의 희망이 여기에 머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시설 보완이 필요한 자재병원은 내년 4월 정식 개원식을 갖는다.

울산=박경수 부산지사장

# 지역주민·불자 위한 불서포교 펼치고자

## 해원정사 제 11호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 선정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허스님) 사찰 도서관이 제 11호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으로 선정됐다. 해원정사는 9월 12일 '불서 기증식 및 헌관 제막식'을 갖고 조계종 문화부와 백천문화재단으로부터 1000권의 불서를 기증받았다.

조계종 문화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조계종 문화국장 수진 스님, 백천문화재단 박찬일 부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함께 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미 10여년간 도서관을 운영하며 꾸준한 불서포교를 실천해 온 해원정사가 이번 불서 기증을 통해 지역주민과 불자들이 불교도서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롤모델이 되어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해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백천문화재단과 종단의 관심으로 1000여권의 불서를 기증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도서



해원정사는 9월 12일 '불서 기증식 및 헌관 제막식'을 갖고 조계종 문화부와 백천문화재단으로부터 1000권의 불서를 기증받았다.

관 운영으로 불서포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월산 대종사 16주기 추모다례식

### 9월 9일 불국사서 봉행

조계종 제 11교구본사 불국사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16주기 추모 다례식을 9월 9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식에는 문도 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월산 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렸다. 문도대표 성타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받들어 수행자의 사명으로 삼아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월산 대종사는 법주사, 불국사, 대승사 조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발전과 평화불사에 헌신했으며 1993년 9월에 입적했다.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식 장면

순문철 대구지사장

## “신행활동의 모범 되어주길”

### 대관음사 임원수련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임원진들이 수련회를 갖고 불교 포교 원력을 다졌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9월 7일 육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수련회를 갖고 사경, 108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현재 1000원 무관량 청정결사 수행 중인 회주 우학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100%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100% 원을 성취할 수 있다”며 “임원진들이 한국불교대학의 제법 보살과 호법신장님의 역할을 하면서 신행활동에도 신도들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거듭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임원진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임원수련회

순문철 대구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도심사찰 자연성 확보 높이자

이번 동국대학교에서 인준된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에서 '현대도심사찰의 자연성 연구'라는 논문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도심에 지어진 사찰의 자연성이 어느 정도 인가를 분석한 논문이다. 그 논문의 필자는 환경부에서 환경계획지표로 적용하고 있는 생태면적률을 평가도구로 사용하여 서울과 부산도심의 7개 사찰이 어느 정도의 생태면적률을 보이고 있는가를 산정하여 대상사찰의 자연성을 평가했다.

생태면적률을 결정하는 인자로는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포장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인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생태면적률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사찰 모두 자연성이 떨어진다는 답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현대도심 사찰에서는 앞에서 말한 생태면적률을 결정짓는 인자들의 도입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도심지에서 사찰을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엄청난 일이다. 그런 까닭에 토지이용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최대한 확보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남은 땅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쓰거나 생산적 용도에 할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면적률을 높이기 위해 나무와 물을 도입하고 옥상이나 지하주차장 상부와 같은 인공지반 또는 벽면에 녹화를 하기는 그렇게 쉬

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찰이 더 이상 사적인 종교공간으로만 기능할 수 없는 현대적 정서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 불교의 가치를 일깨우고 그들을 부처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심사찰이 대중들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면 사찰에 자연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도심사찰에서 자연성을 높여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찰은 예전처럼 종교기능을 담은 공간으로 존재해도 안 되고, 불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사적인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된다. 현대도심에서 부족한 자연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들이 이러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찰을 개방하는 것도 현대사찰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회장)



도심사찰에서 자연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현대사찰의 중요한 덕목으로 포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사사찰

# 2014 삼보불교카렌다 특별가 보급 (기간: 9.5 ~ 10.31 까지)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카렌다들을 특별가로 보급합니다.


삼보불교달력 전국 지역 가맹점 서울, 다보사 02-816-0600, 불심원 02-725-0250, 성불사 02-735-3543, 정릉만물 02-941-4247 경기, 동두천 명성불교사 031-862-2792, 수원 종로불교사 031-254-1080, 안양 관음불교사 031-444-9689 대전, 불교전서관 042-256-4127 전남, 구례 문화불교사 061-783-2627, 순천 영대불교사 061-753-4304, 해남 불교용품 061-532-8604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영대불교 062-269-2584 부산, 반야불교용품점 051-751-7720